

오키나와의 토토메를 둘러싼 상속 관습과 법제도

도구치 히로코 (훗카이도대학)

1. 오키나와의 제사 계승 관습

본 발표는 오키나와의 제사 계승 관습에 대한 사회와 법의 동향을 관찰하고 그 변화 요인에 대해 약간의 검토를 추가한 것이다.

일본 남서쪽 섬들로 구성된 오키나와는 일찍이 류큐 왕국이라는 중국의 책봉 체제하에 있었던 독립 국가였으며 일본 본토와는 다른 역사와 문화를 가진 지역이다. 오래전부터 조상숭배를 중심으로 한 민속 신앙이 있었던 오키나와에서는 제사 계승의 일환으로써 ‘토토메(위패를 뜻하는 오키나와 방언)’를 계승했으며 토토메를 계승한 사람이 해당 집안의 재산 대부분을 상속받는 것이 관습이었다. 토토메를 계승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부친의 혈통을 이은 장남이어야 했으며,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 조상이 벌을 내린다고 여겼다. 토토메 계승 시에 특히 금기시되었던 것은 여성이 계승하는 것, 부계 혈통이 아닌 다른 남성이 계승하는 것, 형제의 위패를 같은 불단에 안치하는 것, 장남을 배제하고 차남 등이 계승하는 것이었으며 토토메를 계승할 장남이 없는 경우에는 가능한 가까운 부계 혈연자, 특히 형제 중 차남에게 계승하는 것이 좋다고 여겼다. 이러한 금기는 유타라고 하는 오키나와의 민간 샤먼을 통해 주창되었으며 오키나와 본섬 중남부를 중심으로 뿌리내리고 있다. 오키나와 본섬 북부 및 이도 지역에는 이렇게 엄격한 계승법이 존재하지 않으며 현재도 금기에 대해 개의치 않는 지역이 많다.

토토메 계승 관습에 따르면 여성과 부계 혈통이 아닌 남성은 계승할 수 없으므로 딸밖에 없는 경우에는 데릴사위를 들이더라도 토토메를 계승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부친의 혈연자인 남성이 토토메를 포함한 재산을 가져가거나 토토메를 계승할 아들이 태어날 때까지 계속 출산을 거듭해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했다. 여기서 오키나와의 상속 관습과 법의 관계에 대해 특히 1980년대 토토메 남계 계승을 둘러싸고 발생한 일련의 사회 현상에 착안하여 사회 변동과 근대법 질서를 바탕으로 관습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밝히고자 한다.

2. 조상숭배와 관습의 성립

근세 봉건제도 아래 ‘집’이라는 관념이 확립된 일본 본토와 달리 오키나와에서는 메이지 시대에 이르기까지 상급 사족士族을 제외하고 가산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집’이라는 관념이 없었으며 농촌에서는 촌락 공동체가 생활의 중심이었다. 17세기에 계보를 가지게 된 사족들 사이에 유교 사상의 영향 등으로 18세기부터 19세기에 걸쳐 남계 위패 계승을 포함한 조상 제사에 대한 관념이 형성되었다. 원래 왕가 및 사족의 제사 계승 관습은 남계 장남이 계승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엄격하게 규제하지는 않았으며 금기가 될 만한 사례도 적지 않게 행해졌다.

1879년 메이지 정부가 진행한 류큐 처분으로 인해 류큐 왕국은 오키나와현이 되었으며 1899년부터 1903년에 걸친 토지정리를 통해 농민이 사유재산으로써 토지를 보유하게 되면서 사족의 관습이었던 조상 제사는 농민들 사이에도 널리 침투되었다. 원래 서민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역할을 하던 유타는 당시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혼란과 불안감에서 사람들의 정신을 안정시켜주는 역할을 더욱 많이 깊어지게 되었는데, 이러한 유타가 조상의 제사에 대한 금기를 만들어내면서 사족 사회에서는 크게 엄격하지 않았던 제사 계승 관습이 원칙적으로 남계 장남이 계승해야 한다는 엄격한 금기를 가지게 된다. 금기를 범하면 조상이 벌을 내릴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사람들을 이를 두려워했고 남계 계승 원칙은

더욱 강화되었다. 메이지유신 이후 혼란스러운 생활 속에서 일본 본토 사람들이 천황을 정신적인 지주로 삼았던 것처럼 천황 숭배와 **이에제도**의 관념이 부족했던 오키나와에서는 류큐 처분 이후의 혼란 속에서 유타와 조상 제사를 정신적으로 의지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유타의 경우 류큐 왕조시대부터 유타에 대한 금압 정책이 행해졌고 류큐 처분 이후에는 유타를 금지하는 명령이 내려졌지만 촌락 공동체에서는 여전히 유타가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 당시 주민들에게 촌락 공동체는 생활의 모든 것이었으며 유타와 주민은 상호 의존적 관계였기 때문에 촌락 공동체에 국가가 정한 공식적인 기준과 공동체 안의 비공식적 기준이 공존했던 것이다.

류큐 처분 이후 메이지 정부는 오키나와에 토지 제도와 조세 제도, 지방 제도 등에 관한 법 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기존의 법 제도를 유지하는 구관온존舊慣濫存 정책을 취했는데 교육에 대해서는 급속하게 일본과 같은 수준의 오키나와인 동화 및 황민화가 추진되었다. 오키나와인 스스로도 근대화된 일본 본토보다 오키나와가 뒤처졌다는 열등감과 일본인들의 차별 및 수탈에 대한 저항 의식 등에서 적극적으로 일본인이 되어 천황의 신민으로 인정받고자 했다. 그러나 오키나와 주민은 전시에 조상 위패를 안고 피난을 가는 등 여전히 조상숭배는 오키나와인 신앙의 핵심이었으며 천황 숭배로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3. 사회 변동과 토토크 문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오키나와는 미군의 통치하에 놓였으며 일본의 법 제도에서 분리되었다. 미군 통치하의 오키나와는 정치적·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했지만 미군 정부에 의해 여성에게도 참정권이 부여되며 1948년 2월에는 여성참정권이 인정된 오키나와 최초의 민주 선거가 거행되었고 같은 해 12월에는 2차대전 이후 오키나와 여성 운동의 주축이었던 오키나와 부인 연합회가 결성되는 등 여성의 사회적 활동에 대한 영역이 확대된 시기이기도 했다.

1972년 일본에 복귀하게 된 오키나와에 일본국 헌법을 비롯한 일본 본토의 법 제도가 적용되었고 오키나와 사람들의 생활에 큰 변화가 일어나면서 일본 복귀에 대한 불안감과 일본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의식 재구축 등이 이루어지며 오키나와란 무엇인지에 대해 모색하려는 오키나와학의 발전이 촉구되었다. 류큐 처분, 미군 통치, 일본 복귀와 같이 한 세기 동안 세 번의 통치체제 변화를 경험한 오키나와 사람들은 정체성 갈등을 겪으면서도 새로운 문화 의식을 재구축해 나갔다.

이러한 격동의 사회 정세 속에서 오키나와의 제사 계승 관습 역시 남녀평등을 내건 새로운 민법의 적용으로 변화를 요구받게 된다. 1980년대 오키나와 지방신문 류큐 신보가 오키나와의 남녀 격차 문제와 관련하여 오키나와의 위패 계승과 재산 상속이 새로운 민법의 재산 균등 분배 상속 및 제사·재산 분리 규정에서 벗어났다고 거론한 것에 대해 전통적인 위패 제사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과 비난이 쇄도했다¹⁾. 류큐 신보가 진행한 오키나와의 위패 계승·재산 상속의 이상적인 형태를 묻는 일련의 캠페인은 ‘토토크 문제’로서 사회 현상이 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여성이라도 토토크를 계승할 수 있어야 한다는 논의와 이 관습을 이끄는 유타에 대한 비판이 일기도 했다.

실제로 재판을 통해 토토크 계승을 다툰 사례도 존재한다²⁾. 마지막까지 부모를 돌본 여성이 부친의 의향에 따라 묘지와 토토크를 계승하여 제사를 지냈는데, 묘지가 시 공원에 위치하여 시와 이전 보상 협상을 시작하자 사촌 남성이 남계 계승 관습을 바탕으로 토토크의 계승과 묘지 계승권을 주장한 사안이다. 여성은 이를 납득하지 못하고 1980년

1) 류큐 신보社 ‘토토크 고찰 왜 여성이 계승하면 안되나’(1980) 류큐 신보社

2) 나하 가정법원 가사심판. 다와다 신스케 ‘토토크 계승 소송’ 오키나와 대백과사전(1983) 오키나와 타입즈社

가정법원에 제소했다. 새로운 민법에서는 재산이 아닌 제기와 분묘의 계승에 대해 계승자가 정해지지 않았을 경우 관습을 인정한다고 했지만³⁾, 법원은 오키나와의 상속 관습 자체가 남녀평등을 규정한 헌법 및 기타 법령에 반하므로 여성을 제사 계승자로 삼는 것이 알맞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 여성은 본인의 주장이 정당하게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비판과 시선을 견디지 못하고 오키나와현 밖으로 이사하게 되었다. 당시 오키나와 사회에서 전통 관습을 중시하던 계층과 낡은 가치관에 대한 극복을 희망하는 계층, 관습과 법의 간극이 짙게 반영된 사례라고 할 수 있겠다.

4. 토토메 문제에 대한 고찰

토토메 문제가 다양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사회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 캠페인이 특별히 주목받게 된 것은 여성의 권리와 유타의 존재 방식에 대한 의식 변화가 뚜렷하게 드러났기 때문일 것이다.

UN이 1975년을 세계여성의 해로 지정하고 1976년부터 1985년까지를 UN 여성 10년으로 지정하면서 류큐 신보는 그 중간해 기획으로 토토메 문제를 내걸었다. 미군 통치하에 오키나와 여성들은 오키나와 부인연합회를 중심으로 일본 복귀 운동에 힘썼지만, 토토메처럼 오키나와의 신앙 및 가족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며 미군 통치하의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 관습 문제에 대해 정면에서 목소리를 내는 일은 없었다. 그러나 1972년 일본 복귀를 통해 오키나와의 복귀 운동이 일단락되면서 금기시되었던 영역의 문제에 대해서도 겨우 대응할 수 있게 된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한다.

그리고 토토메에 관한 전통적인 관습법을 담당해왔던 유타가 새로운 민법에 반해 친족간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으로 비판을 받게 된 것은 전근대적 주술 세계를 극복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오키나와의 기층문화로 뿌리 깊은 영향력을 가진 유타를 통해 유지되어 온 관습은 사회 변동에 따라 가치관과 생활 스타일이 다양해지면서 시대에 맞지 않게 되었고, 이러한 관습에 얽매었던 사람들의 불만과 주술적 문화에 대한 의식 변화가 유타에 대한 비판으로 표출된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한다.

게다가 여성의 권리와 유타에 대한 의식이 관련된 토토메 문제는 오키나와가 일본 본토보다 뒤쳐졌다는 의식을 자극했다. 토토메 문제에 즈음하여 오키나와 변호사회는 ‘토토메와 남계 상속 문제에 관한 견해’에서 토토메 관습은 새로운 민법뿐만 아니라 헌법 24조 양성평등에 반하는 것이며 이러한 관습을 승인할 수 없다고 발표했고, 오키나와 인권 협회는 심포지엄 ‘오키나와 부인 문제 · 토토메를 둘러싼 관습과 인권’ 선언에서 토토메 문제 등 풍속과 관련된 인권 문제와 남녀평등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일본 복귀 이후 일본 본토를 따라잡으려 했던 오키나와 사람들에게 새로운 민법에 반하는 토토메 관습은 극복해야 할 것으로 인식되었으며 기본적 인권 존중을 내건 일본국 헌법하에서 오키나와의 인권 확충을 지향했던 것은 아닐까 하고 생각한다.

현재는 제사 계승 시 여성 상속 금지 등의 금기는 그렇게 엄격하지 않으며 제사 계승과 재산 상속은 분리하여 취급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다. 그러나 토토메 남계 계승 관습이 사라진 것은 아니며 장남이 토토메를 계승하길 바라는 세대가 적지 않고 재산 상속 역시 토토메를 계승한 사람이 더 많은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가 많다.

류큐 처분에 따른 혼란에서 발생한 토토메 계승 관습은 일본 복귀 후 오키나와 사회가 뒤처짐을 의식하며 문화 의식을 재구축하는 가운데 변화하면서도 법과의 차이가 존재하는

3) 재산 상속과 제사 계승 분리에 대해 민법 897조 ‘1. 계보, 제기 및 분묘 소유권은 전 조항의 규정과 관계없이 관습에 따라 조상 제사를 주재해야 하는 사람이 계승한다. 그러나 피상속인 지정에 따라 조상 제사를 주재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해당자가 계승한다. 2. 전 조항 본문의 경우 관습이 명확하지 않을 때 동 항목의 권리를 계승해야 할 사람은 가정법원이 정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상태로 유지되었다. 일본 본토와는 다른 역사와 문화를 가진 오키나와 사회의 민중 의식이 크게 반영된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다. 나라가 바뀌고 법이 바뀌고 때로는 법에 따라 변화하면서도 토토메 관습이 계속 유지되어 온 것은 오키나와의 조상숭배 신앙이 커다란 사회 변동 속에서도 사람들에게 변함없는 정체성을 부여하는 정신적 지주였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본 연구는 오키나와의 민중 의식과 깊은 관련이 있는 토토메 관습과 일본의 법제도 사이에 발생한 간극을 관찰함으로써 사회 변동에 따른 관습의 변용과 법 제도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포스트 콜로니얼리즘 관점에서 법과 관습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통치체제 그 자체의 변화를 경험하면서 현재는 일본 국가법 아래에 있는 오키나와의 법과 관습의 관계에 대해 앞으로 연구를 계속할 생각이다. 앞으로는 상세히 분석하지 못한 오키나와 유타의 사회적 역할과 법의 관계, 특히 토토메 계승에 관한 금기가 왜 유타에 의해 발생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분석하는 것을 향후의 과제로 삼고자 한다.

참고문헌

- 小林武(2020) 『沖繩憲法史考』 日本評論社.
沖繩タイムス編(1976) 『沖繩にとって天皇制とは何か』 沖繩タイムス社.
大橋英壽(1998) 『沖繩シャーマニズムの社會心理學的研究』 弘文堂.
新里群子(1994) 「【沖繩の女性史】土地整理とトートーメ慣行の成立」 『歴史評論 No.530』 丹波書林.
鹿野政直(2011) 『沖繩の戦後思想を考える』 岩波書店.
新崎盛暉(2005) 『沖繩現代史 新版』 岩波書店.
藤崎康彦(2002) 「『トートーメ問題』再考」 『跡見學園女子大學紀要 第35号』 跡見學園女子大學.
若尾典子(2012) 「女性運動と日本國憲法
一家族法をめぐる本土と沖繩の女性運動」 杉原康雄・樋口陽一・森英樹編 『長谷川正安先生追悼論集
戦後法學と憲法 一歴史・現状・展望』 日本評論社

(번역책임자:김민경)